

하이드록시클로로퀸 과민반응에 대한 성공적인 탈감작 1례

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¹

정원주¹, 최주환¹, 심재점¹, 오지연¹, 이영석¹, 민경훈¹, 이승룡¹, 심재정¹, 허규영¹

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4-아미노퀴놀론 유도체로 잘 알려진 항 말라리아제이며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이다. 하지만 색소침착, 반구진 발진 및 DRESS syndrome 등의 피부반응 외에도 망막, 혈액, 심혈관, 소화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.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을 때 탈감작을 통한 재투약이 최선의 치료이며, 외국의 경우 본 약제의 지연성 과민반응에 대해 5시간~36일이 소요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. 이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과민반응 환자에 탈감작을 통해 성공적으로 약제를 재투약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. 환자는 20세 여자,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기저력 및 어머니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족력이 있었다.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 진단되었고,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처음 치료를 시작하였다. 환자는 투약 48시간 이후, 양팔과 손에 소양감을 동반한 다양한 크기의 반구진 발진 및 물집이 발생하였다.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진단되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중단하고,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사용하였고, 2주 후 증상은 호전되었다. 이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탈감작을 위해 알레르기내과로 의뢰되었다. 환자는 이전 알레르기 기왕력 없었으며, total IgE 104 KU/L, 말초혈액 호산구 수는 270 cells/ μ L였다.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상 모두 음성이었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피부침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이었다. 문헌검색을 통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3일간 12단계 탈감작을 진행하였다(Table 1). 탈감작 이후 환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치료용량 (300 mg)에 도달하여 퇴원하였다. 이후 다른 증상 및 과민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래 추적관찰하며 치료를 지속 중이다. 향후 본 약제의 과민반응 환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

표 1. 경구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탈감작 프로토콜 (치료용량 300mg)

Step	Time interval from previous step (h)	Dose (mg)
Day 1		
1	0	0.2
2	4	0.4
3	4	0.8
4	6	1.5
Total dose received: 2.9 mg		
Day 2		
1	0	3
2	4	6
3	4	12.5
4	6	25
Total dose received: 46.5 mg		
Day 3		
1	0	50
2	4	100
3	4	150
Total dose received: 300 mg		
Day 4		
1	-	300
Total dose received: 300 mg		